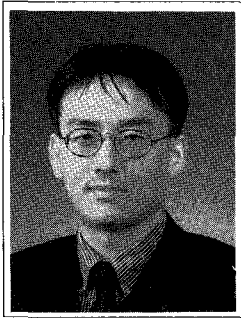




##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건립에 관한 사회·문화적 요인들

최 인 철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조교수



**사**람들은 보통 결정하기 어려운 문제에 봉착하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기보다는 일단 결정을 미룬다. 미루는 것이 가장 속편한 일이기도 할 뿐만 아니라 어떤 경우는 시간이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개인에게든 조직에게든 심지어는 전체 사회에게든 '미루기(procrastination)'는 가장 인기 있는 문제 해결 전략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미루기 전략은 가끔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합리적인 체 위장

되어 나타나기도 하는데, 대표적인 것이 바로 '위원회'를 구성하는 방법이다. 소수의 사람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함으로 말미암아 다수의 사람들은 결정의 어려움을 피할 뿐만 아니라 결정의 책임으로부터도 자유로워지게 된다.

그러나 단순히 미루든지 아니면 위원회를 구성하여 미루든지간에 어떠한 형태로든지 결정을 미루다가 더 이상 결정을 미룰 수 없는 시점이 되면, 장고 끝에 악수 든다는 말처럼 최적의 결정을 내리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심심찮게 발생한다.

실사 최적의 결정을 내리게 된다고 하더라도 일찍 그러한 결정을 내렸더라면 발생하지 않았을 여러 가지 형태의 불필요한 손실을 겪게 된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제 이러한 징후가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건립의 문제에서 감지되기 시작하였다는 것이다.

원자력 전문가들은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건립은 더 이

상 미룰 수 없는 문제라고 주장한다. 또한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과는 달리 상대적으로 안전하며 또한 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 데 필요한 충분한 기술을 확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 정부는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이 들어서는 지역에 상당히 큰 액수의 보상금을 약속하고 나섰다. 따라서 언뜻 보면 쉽게 해결될 것처럼 보인다.

안전이 백퍼센트 보장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전문가들의 견해에 따르면 수용할 만한(acceptable) 수준의 안전성이 보장되어 있고, 또한 그 위험을 직접 감수하는 사람들에게 상당한 보상을 지원하고 있으니, 정부나 원자력 전문가의 입장에서 보면 처분장 건립에 반대하는 해당 주민들이나 시민 단체를 쉽게 납득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반대로 해당 주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전문가들이 아무리 중·저준위 폐기물은 고준위 폐기

물과 다르며 중·저준위 폐기물 처리장이 안전하게 관리될 것이라고 주장함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불안·공포·두려움이 사라지지 않는 것을 어떡할 것인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렇게 안전성을 보장하고 있는 전문가나 정부에 대한 신뢰가 생기지 않는 것을 어떡하란 말인가? 강제로 “정부여! 믿습니다”라는 신앙을 주입시킬 수도 없는 상황이다.

주민들의 입장에서 더욱 섭섭할 수 있는 것은 자신들의 입장에서 가장 최선의 선택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집단 이기주의자들로, 그리고 자신들의 입장이 넘비 현상으로 매도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첨예한 갈등과 인식의 차이를 줄여보려는 그 동안의 노력을 통하여 도출된 결론이 있다면 크게 다음 두 가지이다.

첫째는 중·저준위 폐기물 처리장 건립 문제는 해결이 매우 어렵다는 것과, 둘째는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좁게는 해당 주민들, 그리고 넓게는 우리 사회의 구성원 모두의 ‘사회적 합의’가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즉 이 문제는 기술력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문제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 안전성을 더 확보하는 기술의 개발도 중요하고, 그 안전성을 효과적으로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폐기물 처리장 건립에 대한 자발적인 동의와 사회적 합의라는 것을 인식하게 된 것이다.

지금까지 정부나 전문가들이 중·저준위 폐기물 처리장 건립을 위해서 사용하였던 방법은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일반인들에게 원자력의 실상을 알리는 것이었다. 즉 폐기물 처리장 건립에 반대하는 주 이유로 ‘정확한 정보의 부족’을 꼽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가지고 있는 원자력에 대한 무지를 계몽하는 데 초점이 모아졌었다.

특히 일반인들이 가지고 있는 원자력에 대한 위험 지각(risk perception)이 상당히 잘못되어 있음을 깨우쳐주려고 노력하였다. “아하, 원자력이 그렇게 위험한 것이 아니구나!” 라는 인식의 전환이 문제 해결의 지름길이라고 생각하였고, 그러한 인식의 변화가 가능하리라고 낙관적이라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또 하나는 주민들의 반응을 넘비 현상으로 규정함으로 말미암아 ‘주민들이 스스로 잘못을 깨닫기를’ 기대한 것이었다. 집단 이기주의를 비난하는 여론을 형성함으로써 도덕적인 설득을 시도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그 동안의 갈등 전개 상황은 이런 인지적 계몽과 도덕적 공격이 별로 효과가 없는 것이 아니냐하는 의심을 갖게 한다. 물론 그 동안

시도되었던 노력들이 전혀 근거가 없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문제의 성격상 결정을 더 이상 미룰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해결의 전망 또한 어둡기 때문에 기존의 전략과는 다른 방법을 생각하여 보는 발상의 전환을 시도해 보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기존에 국내에서 논의가 많이 되지 않은 요인들을 중심으로 폐기물 처리장 건립과 관련된 갈등을 새로운 각도에서 진단해 보고자 한다. 지면 길이의 제약상이 글에서는 우선 진단에 초점을 맞추고, 이 진단에 근거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은 다음 기회에 다루어 보고자 한다.

### 심리적 요인

원자력에 대한 태도는, 그것이 원자력발전소 건립이든 폐기물 처리장 건립이든 원자력의 위험성에 대한 지각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원자력의 위험에 대한 일반인들의 지각을 다루는 연구는 그 동안 상당히 진행되어 왔다. 여기서 그 결과를 다시 논하는 것은 피하지만 그 동안의 연구 결과를 간단히 종합하면 원자력에 대한 일반인들의 위험 지각은 전문가들의 그것과 여러 가지 면에서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는 것이다. 일반인들이 전문가들에 비해 원자력의 위험성을 크게 지각



한다는 것은 물론 말할 것도 없다. 그러나 여기서는 기존에 많이 다루어진 측면 외의 것들을 다루고자 한다.

### 1. 원자력에 관련된 사건이나 사고는 아무리 사소하더라도

#### ‘신호(signal)’의 기능을 한다

한 사건이나 사고가 사람들의 위협 감각에서 ‘신호’의 기능을 한다는 것은 그 사고가 이후에 동일한 사고, 혹은 더 심한 사고가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예시해 주는 것으로 지각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차의 전복 사고나 자동차 충돌 사고와 같은 사고들은 원자력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신호의 기능을 약하게 담당한다. 그러나 원자력에 관련된 사고들은 다른 어떤 위험물보다도 신호의 기능이 강하다. 따라서 비록 폐기물에 관련되지 않은 사고라 할지라도, 그리고 그것이 국외에서 발생한 사고라 할지라도, 일반인들에게 해석될 때는 그런 사고가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유사한 사고들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해석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일반인들에게 원자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때, 아무리 사소한 사고라 할지라도 그것이 미치는 영향은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것과는 현격하게 차이가 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최근에 원자력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고 정직하게 하

는 것이 원자력에 대한 불신을 해소할 수 있다라는 가정하에 원자력발전소의 아주 사소한 고장이나 사고들을 일반인에게 공개하고 있는데, 이의 효과성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재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 2. 폐기물에 대한 태도는 지식보다는 감정에 근거하고 있고 그 감정은 정당화되고 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각종 태도들은 그 강도면에서 서로 다르다. 특별히 강한 태도를 흔히 우리는 ‘확신(conviction)’이라고 부르는데, 확신을 가능하게 하는 요인들 중 상당 부분은 감정에 근거한다. 인지적으로 많이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정서적으로 몰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확신을 가질 수가 없다.

그런데 방사성 폐기물에 대한 태도는 상당 부분이 ‘공포와 두려움’이라는 정서적 반응에 근거하고 있다. 어떤 형태로 사고가 발생할지 모르고, 언제 발생할지 모르고,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피해의 정도가 어느 정도일지도 당해 보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다. 이런 이유들로 인해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 건립에 대한 태도는 공포와 두려움에 의해 형성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문제를 더 심각하게 만드는 것은 방사성 폐기물에 대한 이러한 공포와 두려움은 해당 지역 주민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충

분히 공감된다는 것이다.

협오 시설이 자기 지역에 들어서는데 대해서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에 대해서 다른 지역 사람들은 쉽게 공감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러한 반응을 넘비 현상으로 쉽게 규정하기도 한다.

그러나 원자력에 대한 정서적 반응에 있어서만큼은 너와 내가 없다. 해당 주민들의 공포와 두려움이 다른 지역 사람들에 의해 충분히 이해되고 있다는 것이다.

다른 사람에 의해 정당화되지 않고 공감되지 않는 정서적 반응은 쉽게 변화할 수 있지만, 당사자가 아닌 사람에 의해서도 정당화되는 정서적 반응은 바꾸기 매우 어려운 것이다.

### 3. 원자력에 있어서 일반인들의 ‘현실(reality)’은 미디어에 의해 재생산된 현실이다

일반인들이 가지고 있는 원자력의 안전성에 대한 인식이 전문가들의 현격하게 차이가 나는 현상을 보고 한 정신의학자는 ‘미친(insane)’ 짓이라고까지 극하게 반응한 적이 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원자력 전문가들의 입장에서는 일반인들이 ‘현실’을 너무도 모르고 있는 것이다.

정신의학에서 정신 장애의 중요한 진단 기준으로 현실 인식을 들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그 정신의학자

의 반응은 이해가 갈만하다. 그러나 일반인들에게 있어서 원자력에 대한 현실은, 그것이 폐기물 처리장 건립이든 핵무기 문제이든 원자력 발전소 건립 문제이든 ‘미디어에 나타난 현실’이다.

이와 반대로 전문가들이 직면하고 있는 현실은 ‘수치와 자료와 시뮬레이션’에 근거하고 있다. 두 집단이 서로 다른 현실을 다루고 있는 것이지 일반인들이 현실을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니다.

미디어의 속성상, 364일 안전하게 운행되고 있는 원자력발전소는 뉴스거리가 아니지만 사소한 사고에 의한 단 하루의 운행 중단은 아니 단 몇 분의 중단은 당연히 뉴스거리가 된다. 따라서 일반인들이 접하고 있는 현실은 미디어에 반영된 ‘사고, 반대 시위, 핵무기’ 이지 수치와 자료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일반인들의 원자력에 대한 현실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는 그들의 생각을 바꾸는 것보다 그들이 접하는 미디어의 현실을 수정해야 하는 것이다.

#### 4. 폐기물 처리장 건립에 대한 주민들의 반대는 집단(군중) 심리 현상으로 접근하여야 한다

개인의 행동이 집단 속에서 이루어질 때 그 행동은 평소보다 극단적이 되기 쉽고, 사람들은 더 경쟁적이 되며, 논리적인 판단보다는 감정

에 의한 처리를 하기가 쉬어진다. 또한 개인과 개인이 협상을 할 때보다 집단과 집단으로 협상할 때 협상의 원만한 해결이 상대적으로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

폐기물 처리장을 둘러싼 주민들과 전문가들의 갈등은 개인과 개인의 갈등을 넘어선 집단과 집단의 갈등으로 파악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집단 역학에 대한 고려가 선행되어야 하며 집단 협상의 효과적인 전략들을 고안하여야 한다. 그리고 주민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독특한 집단 다이내믹을 파악하는 것 역시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 사회적 요인

한 사회 내에서 공익을 위한 협동적인 행동들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사회적 토양이 ‘신뢰’이다. 신뢰는 그러한 의미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사회적 자본이라고 할 수 있으며, 고신뢰 사회일수록 시민들의 이해와 협조가 필수적인 공공 정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각종 혐오 시설의 건립이나 폐기물 처리장과 같은 위험 시설의 건립 등도 고신뢰 사회에서는 상대적으로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반면 우리 나라와 같은 저신뢰 사회에서는 큰 어려움을 겪게 되어 있다.

그렇다면 무엇이 한 사회 내의 신뢰의 정도를 결정할 것인가? 특히 폐기물 처리장과 관련되었을 때 어떤 요인들이 만족되어야 해당 주민들이 정부나 과학자, 그리고 다른 국민들에게 신뢰를 가질 수 있을 것인가?

#### 1. 더 이상 님비 현상으로 몰아부쳐서는 안 된다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 건립에 반대하는 주민들의 행동을 그 동안 너무나 쉽게 님비 현상으로 규정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를 님비 현상으로 보아서는 안 되는 이유가 몇 가지 존재한다.

첫째, 어떤 집단적인 반대를 님비 현상으로 규정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 주민들이 해당 이슈에 대해 기술적인 이해(technical understanding)가 부족하다는 것을 전제로 해야 한다.

다시 말해 자기 지역에 들어서는 위험 시설물이 정확히 어떤 시설이고, 그 시설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어떤 것들이고, 그 위험성은 무엇인지에 대해 정확하게 모르고 동시에 알려고 하지도 않을 때, 그러면서 반대만 할 때 우리는 이를 님비 현상으로 부를 수 있다.

그러나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 건립을 포함한 원자력에 관한 태도에 있어서 이제 일반인들의 기술적인 이해는 상당히 진전되었다. 물론 전



문가들의 수준에 맞먹는 지식을 가졌다는 것은 아니며 실제로 그것이 가능하지도 않다.

그러나 이제 해당 지역 주민들도 외부 전문가들의 도움이나 시민 단체들의 도움으로 인해 과거에 비해 상당한 정도의 이해를 넓혀가고 있으며 또한 그런 의도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과거처럼 전문가들이 무턱대고 해당 주민들을 '알지도 못하면서 반대만 하는' 집단으로 규정해서는 안되게 되어 있다.

두 번째 이유는, 어떤 해당 지역 주민들의 집단 반대를 넘비 현상으로 규정하기 위해서는 그 해당 지역 주민이 아닌 사람들이 그 지역 주민들을 비난해야 한다. 즉 해당 지역 주민들을 집단 이기주의에 사로잡힌 사람들로 다른 지역 주민들이 비난할 때, 넘비 현상이란 규정은 설득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앞서서도 잠시 언급하였듯이,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 건립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다른 지역 주민들도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대에 동감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넘비 현상으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또한 실효도 있을 수가 없다.

넘비 현상으로 규정하여 얻을 수 있는 이익이란 그 지역 사람들이 주위의 비난을 피하기 위하여 태도를 바꾸는 것인데, 폐기물 처리장 건립에 있어서만큼은 주위로부터 비난

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해와 동감을 얻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아무리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대를 넘비 현상으로 규정하여도 오히려 갈등만 증폭시킬 뿐 그 어떤 커다란 효과도 얻기가 어려울 것이다. 오히려 정부나 다른 지역 주민들에 대한 불신만 가져올 뿐이다.

## 2. 자원하는 지역과 그 주민들에게 비물질적 보상(감사)도 주어져야 한다

폐기물 처리장 건립에 필요한 사회적 합의는 우리 사회의 신뢰의 수준과 직결되어 있다고 위에서 언급하였다. 이 신뢰에는 물론 많은 요인들이 포함되어 있다.

첫째는, 폐기물을 관리하는 집단의 전문성에 대한 신뢰일 것이고, 그리고 이 모든 정책을 추진하는 정부에 대한 신뢰일 것이다. 이 두 가지는 기존의 논의들에서도 자주 언급된 것들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언급되지 않은 신뢰의 요인은 해당 지역 주민들이 일반 국민에 대해 가지고 있는 신뢰의 정도이다.

폐기물 처리장 건립의 문제는 공공 선택의 이론에서 보자면 '자원자 딜레마 (volunteer's dilemma)' 상황으로 볼 수 있다. 어떤 공공재를 마련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이 다 참여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소수의, 극단적인 경우는 단 한 사람이 자원하면 그 공공재가 마련되

는 상황을 가정하여 보자.

세 사람의 친구가 자동차 여행을 가고 싶어하는데 누구도 자신의 차를 가지고 가려하지 않는다고 가정하자. 이런 경우 한 사람이 자원해서 자신의 차를 가지고 가기로 한다면 여행의 기쁨을 모든 사람이 누릴 수 있지만 만일 아무도 나서지 않는다면 그 여행은 무산될 것이다. 이런 상황이 자원자 딜레마 상황이다.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 건립의 문제도 이와 같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만일 안전한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이 어디엔가 건설된다면 그로 인한 혜택은 모든 국민이 누리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면에서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는 후보지들 중 한 곳이 정부의 제안을 받아들여지지 아니면 자원하든지 해야만 폐기물 처리장이라는 공공재가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상황에서 사람들이 자원을 꺼리는 이유들 중 하나는 바로 자신들이 '봉(sucker)'이 된다는 두려움이다. 다른 지역 사람들은 아무런 희생이나 고통없이 혜택을 받는데 자신들만이 희생되고 지각될 때 두려움과 분노가 생기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감정은 다른 지역 주민들에 대한 신뢰가 부족할 때 더욱 심하다. 이 때의 신뢰란, 자신들의 희생을 다른 지역 주민들이 감사

하게 받아들이고 자신들의 희생을 치켜세울 때,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유무형의 감사와 존경의 뜻을 표할 때 자연스럽게 생겨난다.

한 지역의 자원하는 행위가 주변 사람들에 의해 무관심으로 받아들여지고, 심지어는 자원하는 결과에 이르기까지의 갈등과 고뇌의 과정을 넘버 현상으로 매도당하는 분위기에서는 이러한 종류의 신뢰는 생길 수가 없다.

따라서 폐기물 처리장 건립은 해당 지역 주민들과 정부간의 양자 문제가 아니라 실상은 모든 국민들의 문제라는 것을 홍보할 필요가 있으며, 후보 지역에 선정되지 않은 대부분의 지역 주민들로 하여금 후보 지역 주민에 대해서 좀 더 관심과 애정을 가지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정부에서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 건립을 수용하는 지역 주민들에게 상당한 액수의 재정 지원과 보상을 약속하고 나섰다. 그러나 이러한 물질적인 보상과 함께 반드시 필요한 것은 위에서 말한 자신들의 희생에 대한 심리적 지원과 인정인 것이다. 바로 이러한 점이 정부측의 태도에도 결여되어 있고, 더 심각하게는 해당 지역이 아닌 곳의 대부분의 주민들에게 결여되어 있다는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 누군가가 혹은 어느 지역이 공공재를 위해서 자원을 할 때, 그 행위에 대한 충분한 인정

이 보장될 때, 사회 전체의 신뢰 수준이 올라갈 것이며, 그 때 폐기물 처리장 건립과 같은 문제가 해결 될 수 있을 것이다.

### 3. 폐기물 처리장에 관련된 사회적 오명(social stigma)에 대한 두려움을 제거해 주어야 한다

폐기물 처리장에 대한 두려움은 사고에 대한 두려움도 포함하지만 사실은 자신의 지역에 그 시설이 들어섬으로 인해 자신의 지역, 지역 생산물, 지역 사람 등에 대하여 오명이 생길 것이라는 두려움도 상당히 포함되어 있다. 자신의 지역이 가지고 있던 관광지로서의 가치가 사라질 것이고, 자신의 지역에서 생산되는 물건들이 오염의 두려움으로 인해 가치가 떨어질 것이고, 그리고 더욱 중요하게는 자신들이 '핵' 과 연합되어 지각됨으로 인해 불필요한 오명을 받을 것이라는 두려움들(예 : 과연 자신들의 자식들이 결혼 적령기에 혼처를 구할 수 있을 것인가)이 그것이다.

이러한 두려움은 막연한 걱정이 아니라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는 너무나 분명한 현실인 것이다. 실제로 우리 사회에는 혐오 시설과 위험 시설이 들어서 있는 지역에 대해 어느 정도 사회적인 오명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가정의 식탁을 담당하는 주부로서는 같은 가격이라면 폐

기물 처리장이 들어서 있는 지역에서 재배된 농산물이나 수산물은 피하고 싶을 것이다. 새로운 곳으로의 이주를 계획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폐기물 처리장이 들어서 있는 곳으로의 이주는 내켜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아무리 기술의 안정성을 보장한다고는 하지만, 자신들의 지역이 경험하게 될 이런 사회적 오명과 그로 인한 정신적 경제적 손실에 대한 두려움은 쉽게 가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 결국 이러한 사회적 오명에 대한 두려움을 어떻게 해소시켜 줄 것인가를 이전보다 더 심각하게 연구해야 할 것이다.

### 문화적 요인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 건설을 둘러싼 갈등은 비단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다. 다른 나라에서 이런 갈등이 어떻게 전개되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해소되는지를 연구하는 것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하다.

그러나 방사성 폐기물과 관련된 일반인들의 태도가 기술적인 측면에만 국한된 것이 아닌 심리적 사회적 측면을 담고 있다는 것은 문화적인 접근을 시도할 것을 강하게 시사한다.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 건립에 필요한 사회적 합의와 신뢰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한국인만의 행동 특성들, 사고 특성들, 갈등 해결 양식



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 필요성은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갈등 양상에 다분히 '한국적' 인 색채가 배어있다는 것을 보면 더 절실하게 느낄 수 있다. 그 중 몇 가지만 간단히 적어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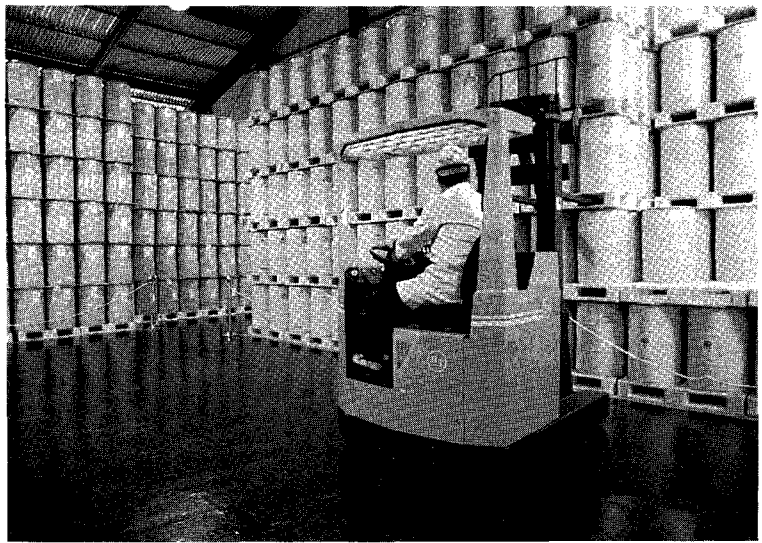
### 1. 우선 한국인들에게 있어서 개인의 정체성은 자신의 지역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한국인의 정체성은 각 개인이 고유하게 소유하고 있는 내적인 특성들(예를 들면, 신념·선호·태도 등)보다는 개인이 소속되어 있는 사회적 집합들(예를 들면, 가족·출신 지역·출신 학교·회사 등)에 더 강하게 자리잡고 있다.

따라서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의미는 미국인이나 다른 서양인에게 출신 지역이 갖는 의미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

미국인에게 있어서의 정체성은 '자신이 되는 것(be yourself)'이다. 자신만의 내적 세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하며 그들에게 자신의 환경은 절대적이지 않다. 따라서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에 관련된 문제들을 다룸에 있어서 그들은 기술적 안정성, 경제적 보상 등에 초점을 맞추지만, 우리의 경우에는 '정체성'이라는 면이 추가로 역할을 담당한다.

따라서 우리의 경우,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대의 심층에는 '자신'



일반인들에게 있어서 원자력에 대한 현실은, 그것이 폐기를 처리장 건립이든 핵무기 문제이든 원자력발전소 건립 문제이든 '미디어에 나타난 현실'이다. 이와 반대로 전문가들이 직면하고 있는 현실은 '수치와 자료와 시뮬레이션'에 근거하고 있다.

을 지키려는 노력이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이렇게 자신의 출신 지역에 정체성을 부여하는 속성은 시골일수록 강하고, 전문가보다는 일반인들에 강하다.

따라서 전문가들이 이 문제에 접근할 때와 해당 지역의 주민들이 접근할 때는 근본적으로 다른 정체성의 문제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고려하지 않으면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대를 쉽게 이해하기가 어렵다.

### 2. 한국인의 사고 특성은 덜 분석적이고 감성적이다.

이 말은 우리가 서양인보다 열등하다는 말이 절대 아니다. 덜 분석적이라는 말은 사람들이 어떤 정보를 처리할 때 인지적으로 꼼꼼하게 따져보지 않는다는 것이며, 오히려 그 보다는 자신들의 감정과 직관에 더 의존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른 나라와 비교하였을 때, 미디어의 제품 광고에서 제품 자체의 소개보다는 유명 연예인들이 자주

등장하는 이유도 그 이유이다.

그렇기 때문에 원자력에 대한 일반인들의 태도를 바꿀 때 너무나 계몽적이고 인지적인 접근은 기대했던 것보다 효과가 덜 할 수 있다.

사실 위의 두 가지 특성 외에도 많은 문화적 요인들이 폐기물 건립을 둘러싼 갈등에 영향을 주고 있다. 그러나 지면 길이의 제약상 아쉽지만 위의 두 가지만 언급하고자 한다.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 건립의 문제는 이제 더 이상 기술적인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가 되었고, 이 문제는 현대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가장 어려운 문제 중 하나가 되었다. "바로 이것이 해결책이다!"라고 내세울 만한 마법도 없어 보인다. 그렇다고 마냥 미룰 수도 없게 되었다.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 본 글은 그동안 비교적 언급되지 않았던 면들을 통해서 새로운 해결책을 모색해보자는 취지로 씌어졌다. ☞